

한중 FTA, 지역경제 엇갈린 전망

광주상의 지역 수출입기업 인식조사

긍정 49.2% “관세인하로 수출 증가·통관서류 간소화”
부정 40.2% “저가 부품·농산물 유입돼 가공업체 불안”

광주 수출입 기업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수출입기업 1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 관련 지역 수출입기업 현장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2%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클 것이라 응답도 40.2%에 달했으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응답도 10.6%였다.

광주상의 지역 수출입기업 대부분이 아직 한중 FTA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혼재한 것으로

풀어졌다.

중국과 교역 중인 수출입기업의 66.7%는 한중 FTA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 증가와 원재료 수입시 수입관세 인하, 중국의 문화산업개방으로 신규아이템 수출 예상, 통관서류의 간소화 등을 들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부품의 다량 수입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과 대기업 납품 중단,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식품 가공업체의 불안요소 등은 부정적인 전망의 이유로 꼽혔다.

한중 FTA의 적절한 발효시기에 대해서는 2016년이 적절하다는 응답(66.7%)이 많았으며 2015년 연내 발효는 16.7%에 그쳤다.

발효시기를 2016년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은 것은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41.7%)와 중국 시장 모니터링 강화(40.2%), 중국시장 신규사업 진출(33.1%), 중국 현지 투자 확대(14.2%),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11.8%)의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기업들이 한-중 FTA 발효를 전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는 업종별 피해경감 및 해소대책 마련(37.9%)을 가장 원했다.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지원 강화(29.0%), FTA 활용 지원 확대(19.3%), 신규수출시장개척지원(13.8%)도 나왔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지역기업들이 저가의 중국 제품 유입에 대비해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중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한 JB금융그룹 광주은행장이 지난 20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제47주년 기념식에서 “광주은행 47년 역사는 지역민들의 사랑과 관심 덕분으로, 향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은행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한 47년

창립 기념식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0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4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광주은행 창립기념식은 우수 직원 표창장 수여식으로 시작해, 광주은행의 지난 47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지역민들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임직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창립 이래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가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그 역할을 다하며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 김한 은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47년간 광주은행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님들과 주주,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덕분이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 받는 광주은행을 만들자”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67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2 15 24 36 41 44	42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21,114,407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9,229,348	37	
3 5개 숫자일치	1,505,871	1,701	
4 4개 숫자일치	50,000	79,827	
5 3개 숫자일치	5,000	1,330,115	

KDB생명, 김장김치로 다문화 사랑나눔



KDB생명(총괄부사장 권영민)은 지난 20일 오후 광주시 남구 임암동 '광주김치타운'에서 '다문화 사랑 나눔 김장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KDB생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광주본부(본부장 이순현) 임직원 및 설계사 20명, 다문화가족 40명이 참여해 한국대표음식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이뤄졌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임종룡 “취약계층 채무부담 줄이겠다”

(금융위원장)

광주서민금융통합센터 개소식 참석...윤장현 시장과 MOU

정부가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2일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이 센터 개소식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위원장은 “최대 원금 감면율을 현



조정과 범의의 공적 채무조정을 연결해 사적조정이 어려운 경우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작년 11월 부천 통합지원센터 개소 후 1년 새 미소금융 지원은 32%, 채무조정은 17% 증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센터의 복

합·연계·맞춤형 서비스가 서민분들의 금융으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복위와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또 이날 임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서민금융 지원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한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복위,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기관 직원이 함께 근무하도록 저리로 돈을 빌리려는 서민층이 한 자리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카드 현금서비스 잘 안쓴다

첫 年 1억건 미만 전망

가계 씬씀이가 꾸준히 줄고 있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도 올해 눈에 띄게 줄었다.

22일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개인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건수는 6천653만800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8.5%(619만9000건) 감소했다.

올해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7만 3000건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행이 관련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

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 건수가 1억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02년 4억8138만4000건이었던 현금서비스 이용 건수는 2003년 3억1432만건, 2004년 2억348만5000건으로 줄었고 2005년 1억7482만3000건으로 1억대로 내려갔다. 지난 2013년 1억1941만9000건에 이어 지난해 1억886만6000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9980만7000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2005년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57%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쏘울 등 7개 차종 7800대 리콜

기아자동차의 쏘울과 메르세데스-벤츠 C200 등 6개 차종, 푸조와 시트로엥 7개 차종 등 총 7800여대가 리콜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아자동차의 쏘울 6565대는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핸들작동 시 소음이 나거나 성능을 저하할 가능성이 적발돼 리콜한다.

기아차는 같은 문제로 올해 12월22일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쏘울 28만대를 리콜할 예정이다.

리콜 대상자에게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도록 통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김대성기자 bigkim@연합뉴스

정부지원사업 : 소상공인에게 꿈과 희망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공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 지원규모 : 200억 원
- 자금개시일 : '15.11.25 (예정)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역별 환산보증금 {임대차보증금+(월 임차료x100)}보호범위 * 내의 임차인 * '14년 기준 서울 4억 원, 과밀억제권역 3억 원, 광역시 등 2.4억 원, 기타지역 1.8억 원

-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신청대상 예시
- ① 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운영자금 대출희망자
- ② 월세에서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추가자금이 필요한 임차인
- ③ 임차보증금인상 요구를 받고 추가자금이 필요한 임차인

- 대출금리 : 연2.47% (분기별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업체당 최고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상환기간 연장가능)
- 구비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등
- ②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전환자금

- 지원규모 : 200억 원
- 지원대상 : ① 소상공인 창업패키지 교육 수료자
- ② 자금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업종전환 소상공인 또는 향후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경 전) 연2.7%
- (변경 후) 연2.47~2.62%
- (① 창업패키지 이수자2.47% / ②업종 전환자(희망자)2.62%)
- 지원한도 :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구비서류
- ①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등
- ② (창업패키지 수료생) 창업패키지 수료증
- ③ (업종전환자) 업종전환 전·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업종전환희망자는 제출 생략)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발급처 : 국제청중테스(www.hometax.go.kr)

★ 일반경영안정자금

- 지원규모 : 1조 1,700억 원
- 지원대상 : 정책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대출금리 : 연2.85% (변동금리)
- * 정예인 기업은 2.5% (고정금리)
- 지원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 장애인기업 7년 (2년 거치 후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구비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②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가입자 명부 또는 사업장별 고지대상자 현황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지원절차

- 신청접수(공단 지역센터)
- 적격여부 검토 (정책자금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신용평가(지역신보)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 신용, 담보부 대출시 보증 절차 생략
- 대출실행(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방문 신청 (보증기관 보증 및 금융기관 대출 절차 별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전국) 1588-5302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타정책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전환대출 / 소상공인창업자금 / 소공인 특화자금

※ 업체당 한도는 최대한도 금액으로 업체당 보증 및 대출 평가 금액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